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11:1-10	제2독서	로마서 15:4-9	복음	마태오 3:1-12
--------	------	--------------	------	------------	----	------------

◎말씀 <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대림시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리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1, 15)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의 나라는 구약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어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것(시편98, 9참조)을 말합니다.

죽음 다음에 가는 ‘천국’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생활에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이며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열고 가르쳐준 고마운 선구자였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대야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안과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전과 같이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의 죄를 용서한다.” 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몸소 찾아주실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과 이웃의 고귀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 10일(화)	대림 제2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855.00 \$ 1,162.00
12월 11일(수)	대림 제2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460.00 \$ 182.00
12월 12일(목)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157.00 \$ 70.00
12월 13일(금)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ACA Rebates	\$ 500.00 \$ 451.00
12월 14일(토)	심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오후 5시	합 계	\$ 5,837.00
12월 15일(일)	대림 제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0명 성인: 191명

교무금
봉헌자

신영후. 이종만. 박재례(11-12월) 김광희. 국부자(10-12월) 최원숙(7-12월) 이민석(10-11월) 민병규(4-11월) 임복순(9-10월) 임채봉(8-9월) 양경민(11월) 최중구. 윤영자. 김기환. 우순이. 김병길. 김운태. 김옥륜. 박을생. 김양순. 조용주. 황호민. 이정규. 김영숙(12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대림은 형제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깨어나는 시기” - 프란치스코교황, 대림1주일 삼중기도 가르침에서 발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대림시기 4주 동안 전례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도록 이끄는 한편 그분께서 우리의 삶 안에 매일 오시며 세상 끝 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사야 예언자가 영감받은 목소리를 통해 대림기간 내내 초대하는 것처럼 신뢰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고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리라”(이사 2,2)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모든 민족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 소개됩니다. 하느님 성자의 강생 신비 후 예수님 스스로 참된 성전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의 놀라운 비전은 하느님의 약속이고 모든 역사의 의미요 목표인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 곧 순례의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합니다.

정의에 굽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만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기주의적 이익만 추구하는 길을 따르기를 선호하는 데서 악과 죄가 나옵니다. 대림시기는 하느님의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해 평화의 전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절한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4,42) 깨어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기꺼이 은사를 받고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잠은 무관심, 허영,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 소외되고 버림받았거나 병든 형제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입니다.

따라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할 의무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활동,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서 놀라는 것이고 그분을 으뜸으로 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게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의 어머니요 늘 깨어 계신 동정마리아께서 모든 인간과 민족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주님의 산’을 향해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배국.사도요한의 영혼	익명	생	김한모.바오로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사목회
연	정홍용.바오로의 영혼	정미정루시아가정	생	김한모.바오로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연	이정은.수산나의 영혼	이진행.베드로	생	최고르코니아,김프란치스코의 영육간 건강	아빌라회
연	이재성.요셉의 영혼	박프란치스코			

간 장 중 지	◎새 별이 되듯◎	
	빛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이여	어둠에 빛으로 오시는 이여
	빛으로 와서 와서 위로하시는 이여	내 안이 밝아져 빛 한줄기 말씀 한 마디
	서산에 날 세우고 어둠을 사르소서	유경환 클레멘스.시인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성당에 제출하는 CHECK 발행하는 법</p> <p>Payee to: <u>St. J.H.C</u></p>	
---	---	--	--

<p>♥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 성 명: 조민우 * 출생일자: 2019년11월7일생 * 가족관계: (아빠)조성용.레오 (엄마)김남희.마리아 (형)조재우 (누나)조수아 * 구 역: 3구역</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은혜로운 대림절 되세요.

1. 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 15일(일)성당에서 오후3시30분 출발
참여단체; 회장단. 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세요.
2. 모임안내
꼬미시움: 15일(일)오후1시. 엘리사벳방
울뜨레아: 18일(수)오후7시30분. 엘리사벳방
3. 본당신부님 서품기념(10일) 영적예물
묵주기도: 4,145단 사제웅 위한기도: 1,385회
화살기도: 987회 미사: 59회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4. 대림절 음악피정(찬미와 함께하는)
일시: 7일(토)오후7시-9시30분. 성당
8일(일)오후1시30분-3시30분. 성당
강사: 원영배. 어거스틴부제님(St. Bede성당)
주제: 오소서, 임마누엘.
천상의 노래를 품고 우리안에 오소서
5. 사랑의 나눔 Giving Tree 안내
목적: 노숙자어린이학교(Muatard Seed)
Nora's Place에 전달할 선물(New선물)
기한: 15일(일)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성탄판공성사(성사표: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음)
대림시기동안 미사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들과 함께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7. 주님 성탄대축일 전례 및 행사안내
성탄대축일 밤미사: 24일(화)오후8시. 초준비
성탄대축일 낮미사: 25일(수)오전11시
성탄행사: 낮미사후. 친교실(빙고, 라플, 게임등)
기쁜 성탄위해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8. 유아세례신청: 전례부(24일까지)
9. 세례대상자 피정
일시: 21일(토)오전9시30분. 성당
대부모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10. 성탄맞이 본당청소(게시판 참조해주세요)

11. 감사합니다
어르신잔치를 위해 수고하신 사회복지부와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 세례식(성탄반) 안내
일시: 25일(수)성탄 낮미사중
주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심을 축하드려요
대부모님과 신자들의 기도바래요(게시판참조)
13. 매일미사 신청안내(2020년용)
신청: 성물방 주동숙. 모니카(1년 \$45)
14. 제단체. 부서별 결산서 및 내년도 계획서 제출
기한: 22일(일)까지 총무부장(김상범)께 제출
15.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27일(금)오후7시30분. 성당
체험발표; 이순자. 요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16. 교구 2차헌금
일시: 8일(일)모든미사
목적: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17. St. Mary's 천주교공동묘소 한국섹션 개인별
묘소위치 선정(교구직원 설계도지참 방문)
일시: 8일(일), 15일(일)오후12시-2시. 친교실
문의: 고원석바오로(916-813-4440)
18.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재성. 요셉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려요
19. 감사합니다(도네이션)
광고비: Gormley장 의사(\$200) 사무라이(\$300)

<주일학교 소식>

성탄트리/구유장식 : 7일(토)오후3시-4시
청소년 성탄판공성사: 14일(일)오후3시-4시
청소년 성탄찬양 : 21일(토)오후3시-4시
교우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식사봉사(이번주); 소화데레사 보조: 이요안나
식사봉사(다음주); 1구역 보조: 주모니카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 9-10구역
- 폐 플라스틱음료병, 캔 수집(친교실-청년회)

화답송



전례봉사	대림제2주일(12월8일)	대림제3주일(12월15일)	대림제4주일(12월22일)	성가정축일(12월29일)
해설	오민정. 크리스티나	정미정. 루시아	김은영. 폴리나	최금주. 요안나
제1독서	장선순. 글로리아	장석자. 요한보스코	이인숙. 세실리아	김길록. 이레네요
제2독서	김태선. 아네스	장선순. 글로리아	나송희. 엘리사벳	김성녀. 베로니카
복사	최준우. 김규철	허호영. 박성호	장현철. 윤여훈	장현철. 윤여훈
봉헌/기도/청소	9-10구역	9-10구역	9-10구역	9-10구역
헌금위원	임상일. 박병수. 안혜숙	안병훈. 정의주. 박수옥	윤재경. 안강순. 고원석	이영숙. 임혜숙. 이경희